SK하이닉스, AI 메모리 호황 질주… 설비·기술투자 '총력'

美 매출 147조, 전년 대비 3배 급증
HBM·서버용 D램 수요 확대가 견인
시설투자 31조… 작년 투자액 추월
연구개발비 10조 돌파 '역대 최대'
용인 팹 조기 가동 생산능력 확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매출이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생산시설 확충과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17일 SK하이닉스가 전날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매출은 236조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매출은 147조7392억원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조1802억원보다 102조5590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미국 매출 확대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서버용 D램 수요가 늘어난 데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매출 규모가 커졌다.

주요 고객사에 대한 매출도 늘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고객사 매출은 올해 3분기 누적 34조9778억원으로 전년 동기 17조3551억원보다 101.5% 증가했다. 전체 매출의 14.8%에 해당한다. 회사는 고객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거래처를 엔비디아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고객사에서는 23조850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전체 매출의 10.1%에 해당하는 규모다. 두 고객사 매출을 합하면 58조8287억원으로 전체의 약 24.9%를 차지한다. 중국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4.8배 증가한 56조1378억원을 기록했다.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세는 생산시설 투자로도 이어졌다. 올해 3분기 누적 유형자산 취득액은 31조216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투자액 30조173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투자액 17조5950억원과 비교하면 3분기에만 13조6213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 M15X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 1기 팹의 첫 클린룸 개방 시점은 당초 내년 5월에서 2월로 앞당겼으며, 내년 4분기 첫 양산 제품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증설은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주요 고객 14곳과 장기계약을 체결해 2027년과 2028년 생산 물량의 절반 이상에 대한 판매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차세대 메모리 기술 확보에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는 10조94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6조7325억원보다 약 50% 증가했다. 누적 연구개발비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은 4.3%다.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무 여력도 커졌다. 올해 3분기 말 현금·현금성 자산 등은 114조45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6052억원 증가했다. 반면 차입금은 15조7996억원으로 같은 기간 8조2791억원 감소했다. 현금성 자산 등에서 차입금을 뺀 순현금은 98조6600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첨단 공정 전환과 신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실적발표에서는 HBM4 양산과 출하를 확대하고 있으며 서버용 DDR5 판매량도 전 분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고객 수요와 수익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효성티앤씨, 바이오 스판덱스로 유럽 공략

이탈리아 친환경 패션 포럼 참여
사탕수수 기반 섬유 경쟁력 강화

효성티앤씨가 사탕수수 기반 바이오 스판덱스의 생산 역량을 앞세워 유럽 친환경 섬유 시장 확대에 나선다.

효성티앤씨는 최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 지속가능 패션 포럼(VSFF)'에 메인 파트너로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VSFF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경영진과 정책 입안자 등 800여 명이 모여 공급망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포럼의 지속가능 섬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베트남 공장의 '리젠 바이오' 스판덱스 일관 생산체계 가동 성과를 공유했다. 해당 공장은 사탕수수 유래 원료부터 완제품 섬유까지 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탈리아의 글로벌 무봉제 편직기 전문 기업 산토니(Santoni)와 공동 개발한 리젠 바이오 스판덱스 적용 의류도 처음 공개했다.

글로벌 바이오 스판덱스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 원료 기반 섬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바이오 소재 도입 확대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 기반 유럽 협의체(BEA)'를 출범했다.

효성티앤씨는 유럽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바이오 섬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지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스판덱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리젠 바이오 스판덱스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을 발효해 만든 원료를 활용한다. 효성티앤씨는 앞서 지난 2022년 옥수수 유래 원료를 활용한 바이오 스판덱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삼성, 메모리값 급등에 스마트폰 수익성 '악화'

메모리값 급등에 실적 부담 가중
MX사업부 3분기 6000억 적자
프리미엄 판매 확대·원가관리 집중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부품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원가 관리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6.7% 감소해 10억대를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도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를 인용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지난 2025년 12억5900만대에서 11억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위축과 함께 저가형 스마트폰의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저가형 스마트폰의 부품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5년 3분기 20%에서 올해 3분기 54%로 높아졌다. 일부 제조사는 저장용량과 카메라 사양을 조정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완제품 가격도 상승세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지난 9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존 스마트폰의 소매가격은 연초 대비 평균 15% 상승했다. 신제품 가격은 전년 대응 모델보다 평균 25% 높았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교체를 미루거나 할인 행사와 중고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DX부문의 모바일용 메모리 평균 매입가격은 지난 2025년 연간 평균 대비 약 263% 상승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솔루션의 평균 매입가격도 8% 올랐다. 같은 기간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 상승률은 13%였다.

올해 1~9월 삼성전자 DX부문의 모바일용 메모리 외부 매입액은 7조6993억원으로 전체 원재료 매입액 62조4307억원의 12.3%를 차지했다. 모바일 AP 솔루션 매입액은 10조7929억원으로 17.3%에 달했다. 두 부품의 매입액을 합치면 18조4922억원이다.

삼성전자 MX·네트워크사업부는 올해 3분기 약 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 상승이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 AI·친환경 철강 경쟁력 강화

글로벌 고객사 450곳과 협력 확대
미래 신산업·탄소저감 등 26건 협약

포스코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을 확대하며 철강 사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포스코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지속가능소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고객사 450개사의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다.

포스코는 포럼 기간에 글로벌 파트너 및 주요 고객사와 총 2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데이터센터(AIDC)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조선·해양용 지속가능 소재 협력, 탄소저감재 공급 및 공동개발(JDA) 등을 추진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EVI 포럼'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철강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가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중인 '2026 지속가능소재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있다. /포스코

AX와 GX를 중심으로 고객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에서는 총 31건의 강연이 진행된다. 17일 오전 기조강연에서는 미래학자 조너선 브릴이 AX와 GX에 따른 산업 변화와 경쟁 우위를 제시했다. 이어 구글 클라우드의 프라빈 라오 산업 총괄과 유비테크 로보틱스의 친샤오쥔 해외사업 총괄이 AI 기반 산업 변화와 제조 혁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유혜온 기자

삼성, 학교 AI 교육에 갤럭시 XR 도입

중학생 대상 실감형 체험 확대
3D 여행·AI 대화 등 실습 강화

삼성전자가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AI) 교육에 확장현실(XR) 기기를 도입해 학생들의 체험 범위를 넓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부터 '갤럭시 AI 클래스'에 헤드셋 형태의 기기 '갤럭시 XR'을 활용한 체험 과정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여행 과목을 신청한 중학교 2~3학년 학급 중 XR 체험을 추가로 선택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수업은 전문 강사의 시연에 이어 조별 대표 학생이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서클 투 서치'로 눈앞의 사물을 검색하고 '제미나이 라이브'로 AI와 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몰입형 3차원(3D) 지도로 여행지를 둘러보고 입체 사진을 감상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가 구글·퀄컴과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탑재한 제품이다.

음성과 시선, 손동작으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다. 이번 수업에서는 사용자가 보고 듣는 정보를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AI'의 작동 방식을 체험한다.

지난 3일 서울 대방중학교에서 열린 시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크게 보여 생동감이 넘쳤다"며 "손으로 화면을 움직이고 AI와 대화할 수 있는 점이 신기하고 새로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기정원

中企 공정혁신 R&D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제조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R&D 과제 10개를 선정해 기술개발을 돕는다. 과제당 2년간 최대 1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17일 기정원에 따르면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R&D'는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해 기업의 공정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연구기관과 중소제조기업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금속·뿌리, 비금속, 반응공정가공품, 전기·전자, 기계 등 5개 분야의 제조공정 참조모델 80개를 분석하고 중소제조기업 60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R&D 과제 10개를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bada@